

보도시점 2025. 6. 26.(목) 12:00
(2025. 6. 27.(금) 조간)

배포 2025. 6. 26.(목) 09:00

물고기 찾으러 떠나볼까요? 어디로? 과학관으로!

- 국립중앙과학관, 「자산어보, 인공지능으로 부활하다 - 정약전, 바다를 기록한 조선의 과학자」 개최
- 인공지능으로 그려보는 자산어보, 과학실험 프로그램, 물고기 찾기 퀴즈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마련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한국과학기술사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자산어보, 인공지능(AI)으로 부활하다 - 정약전, 바다를 기록한 조선의 과학자」 특별전을 오는 6월 27일(금)부터 8월 24일(일)까지 한국과학기술사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실학박물관, 다산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졌다.

특별전에서는 조선의 실학자 정약전의 저서 자산어보*를 집중 조망한다. 실학 서적으로서의 자산어보가 아닌 현대 과학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자산어보의 의미를 알아본다. 또한 정약전의 기록과 인공지능이 만나 200년 전의 바다 생물을 그림으로 되살려낸다.

* 자산어보는 정약전이 1814년 유배지 흑산도에서 집필한 해양생물 백과사전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산어보 필사본’을 「국가중요 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별전은 3개의 전시 분야로 구성했다. ‘나눔과 묶음’ 분야에서는 자산어보에서 바다 생물들을 분류한 과학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현대 과학의 분류 방법과 비교해 보며, 관람객이 직접 비슷한 생물끼리 나눠 볼 수 있는 체험 전시를 준비했다.

‘보고 듣고 알아내다’ 분야는 정약전이 바다 생물을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지식을 토대로 생물 정보를 알아냈던 집필 과정을 따라가며 책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실제 200년 전 흑산도 앞바다에 살았던 바다 생물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공지능으로 부활하다’ 분야에서는 그림이 없는 자산어보를 인공지능을 통해 그림백과로 재탄생시켜 본다. 자산어보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그림 작품을 만나볼 수 있고, 관람객이 인공지능 그림 작가가 되어 바다 생물들을 그려보고 전시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하였다.

전시와 함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자산어보 상어를 주제로 하는 과학실험과 나만의 그림백과 자산어보 만들기 체험을 7월 5일(토), 7월 19일(토)에 운영하며, 과학관에 숨겨진 자산어보의 생물을 찾아보는 체험 활동을 완료하면 작은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과학유산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대해 알리고 과학문화로서 즐기도록 하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많은 관람객들이 이 전시를 통해 재미있는 체험 활동을 즐기고, 유익한 과학 지식을 담아갈 수 있는 여름의 바다 같은 시원한 휴식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고 말했다.

특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자산어보, 인공지능으로 부활하다 - 정약전, 바다를 기록한 조선의 과학자」 특별전 포스터

담당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한국과학기술사과	책임자	과 장	신은경 (042-601-7905)
		담당자	사무관	김용범 (042-601-7951)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 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학박물관, 다산박물관 협력전시

그림 : 조태성